

“날씨가 따뜻해졌다”...불타는 테스형, 방망이 뜨거워졌다



KIA 소크라테스, 지난 주 4연승 주역으로 활약

“예전에 좋았던 스윙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

“날씨가 따뜻해졌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KIA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브리도의 방망이도 뜨거워지고 있다. 승리의 해결사가 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2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3회 역전 투런홈런 포함 4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을 올리며 3-2 승리를 이끌었다.

KIA는 이번 주 4전 전승을 거두며 다시 가파른 상승세에 올랐다. 지난주 5연패의 시름을 완전히 털어냈다. 18승17패, 승률 5할도 넘어섰다. 이날은 1만9030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모처럼 만원에 가까운 홈구장에서 승리를 선사했다.

이날 소크라테스는 1회는 2사후 1루 강습타구(실책)을 날리고 1루를 밟았다. 김선빈의 적시타로 홈을 밟아 첫 득점을 올렸다. 팀이 1-2

로 역전을 당한 3회말은 무사 1루에서 키움 선발 후라도의 투심을 견어올려 우중간 담장을 넘겼다. 인크퍼프 홈런존을 넘겨 현금 200만 원도 챙겼다.

KIA는 이 점수를 끝까지 지켜 4연승을 질주했다. 이번주 KIA 4전 전승은 소크라테스의 타격에서 비롯되고 있다. 16일 대구 삼성전에서 7회 스리런포를 가동해 8-2 대승을 이끌었다. 다음날도 솔로홈런과 결승타를 포함해 2타점을 올리며 연승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19일 광주 키움전에서는 타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2안타 2득점을 올리며 10-1 승리에 기여했다. 이어 이날은 화끈한 홈런포로 역전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4연승 과정에서 3홈런 7타점, 타율 4할1푼2리의 화끈한 공격력을 과시했다. 소크라테스가 타자 득점루트가 술술 풀리고 있다.

경기후 소크라테스는 “예전에 좋았던 스윙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 또 좋은 결과들 많이 따라올 것 같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무언가 몸이 새로워지는 거고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 작년 5월 되돌아보면 그때는 나도 미친 듯이 너무 잘쳤다. 아직은 그런 페이스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4월 부진했던 이유도 밝혔다. “상대투수들이 스트라이크존 아래로 떨어지는 볼들을 많이 던진다. 그래서 최대한 볼을 높여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시즌 초반에 고전했던 이유였다. 그 투구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실적으로 부진탈출을 알리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활약도 다짐했다. “홈런이나 수치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일단 작은 것 하나라도 최대한 팀을 도우며 함께 이끌고 싶다. (황)대인과는 함께 서로 웃고 떠들고 장난치면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최대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약속했다.

이슬비기자

‘선두 싸움’ SSG-LG, 인천서 대격돌

3위로 내려온 롯데, NC와 ‘낙동강 더비’

치열하게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는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가 인천에서 대격돌한다.

SSG와 LG는 오는 23~25일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3연전을 벌인다.

두 팀이 맞붙는 것은 올 시즌 두 번째다. 지난달 25~27일 잠실에서 펼쳐진 양 팀 간의 3연전에서는 LG가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다.

SSG와 LG는 지난 20일과 21일 나란히 공동 선두를 유지했다.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 단독 선두가 나올 수 있어 양 팀 간의 대결이 한층 뜨거울 전망이다.

SSG는 지난 주말 선두 경쟁을 펼치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유통 대전’에서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기세를 끌어올렸다.

지난 19일 롯데와의 3연전 첫 경기를 내렸지만, 원투펀치인 김광현과 커크 맥카티의 패투를 앞세워 나머지 2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첫 판에서 지면서 잠시 내렸던 선두 자리도 되찾았다.

LG도 상승세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 4연승을 질주하는 등 지난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거뒀다.

지난 주말 한화 이글스와의 3연전에서 팀 타

율 1위(0.290)에 빛나는 타선이 다수 추종했지만 강력한 마운드의 힘을 앞세워 스윙에 성공했다.

롯데 자이언츠는 NC 다이노스와의 ‘낙동강 더비’에서 선두 재등극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SSG와의 3연전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선두를 탈환했던 롯데는 2연패에 빠지면서 순위가 3위로 밀렸다.

공동 선두인 SSG와 LG가 맞대결 하는 가운데 선두에 2경기 차로 뒤진 롯데는 이번 3연전에서 선두 자리를 다시 쟁취하는 어렵다. 그러나 NC와의 3연전에서 최소 2승 이상을 거두면 언제든지 선두 재등극을 노릴 수 있다.

롯데와 NC의 낙동강 더비가 펼쳐지는 것도 올 시즌 두 번째다. 지난달 21~23일 벌어진 3연전에서는 롯데가 모두 승리를 챙겼다.

‘정규리그 MVP’ 최준용 합류 KCC 조화 이룬 ‘전주비빔밥 농구’ 기대감



약기간 5년, 첫 해 보수총액 6억원(연봉 4억2000만원·인센티브 1억8000만원)에 계약했다.

모 구단과 사인 앤 트레이드 형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큰 손’ KCC가 뒤늦게 참전해 대어를 낚았다.

최준용의 합류는 새로운 슈퍼팀의 등장을 알렸다.

KCC는 지난 시즌 FA 최대어 이승현, 허웅을 나란히 7억5000만원에 동시 영입했다. 대형 자원들이다. 최준용이 합류한 데 이어 11월에는 간판 포워드 송교창이 군에서 전역한다.

사총사로 국가대표 라인업을 구성했다. 가드 허웅을 제외한 세 명의 포지션 중복에 따른 교통정리와 출전시간 배분이 변수지만 이름값은 단연 우승후보 0순위로 손색이 없다.

최준용은 200cm의 장신 포워드지만 포인트가드부터 파워포워드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다.

안정된 볼 핸들링과 센스, 넓은 시야로 국가대표팀에서 여전사령관 역할을 잠깐 맡은 적이 있다. 또 긴 팔과 높이로 빅맨 수

비에서 탁월한 능력을 자랑한다. SK가 챔피언에 오른 2021~2022시즌 오세근(SK·당시 인삼공사)을 가장 괴롭혔던 게 최준용이다. 기록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승에 기여한 부분이 매우 컸다.

이 시즌 정규리그에서 최준용은 54경기 전 경기에 출전해 평균 16점 5.8리바운드 3.5어시스트로 활약, MVP를 수상했다.

변수는 부상이 잦은 점과 개성이 강한 성향이다.

최준용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26경기밖에 뛰지 못했다. 또 단기간에서 발뒤꿈치 부상으로 전력에 힘을 보태지 못했다. SK는 챔피언결정전 7차전 접전 끝에 준우승에 만족했다.

또 농구와 무관한 코트 밖 이슈로 선수단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경우가 있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선수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최준용에 앞서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MVP 오세근은 전격적으로 SK 유니폼을 입었다. 중앙대 52연승 신화를 함께 했던 김선형과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SK 역시 핵심 포워드 안영준이 군에서 전역할 예정이다. KCC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준용의 친정팀 SK와 KCC 두 팀은 2023~2024시즌 내내 묘한 기류 속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준용에 앞서 포인트가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호현도 영입한 KCC는 할 수 있는 최상의 퍼즐을 모두 완성했다.

이들의 시간과 역할을 조화롭게 분배해 전주비빔밥처럼 좋은 맛을 낼 수 있도록 지휘할 몫은 전장진 감독에게 있다. 성적 부진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KCC의 지원이다.

KCC는 2010~2011시즌 챔피언 이후 13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성유진, 박현경 꺾고 KLPGA 두산 매치플레이 우승

개인 통산 2승...“한 홀, 한 홀 내 플레이만 잘하자 생각”



성유진이 동갑내기 박현경을 꺾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성유진은 21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9억원) 결승전에서 박현경에 4홀 차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성유진은 생애 처음 우승한 지난해 6월 롯데 오픈에 이어 통산 2승에 성공했다.

성유진은 조별리그 3경기를 포함해 한 번도 패하지 않고 7연승으로 정상에 섰다.

또 대회 방식이 바뀐 2017년 이래 가장 적은 109홀을 뛰고 우승한 선수가 됐다. 2016년까지는 64강 토너먼트였다.

지난달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성유진은 국내 대회에서 우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유진은 우승상금 2억2500만원과 대상포인트 60점을 챙겼다.

이날 오전 준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홍정민을 꺾고 결승에 오른 성유진은 2번(파5)과 3

번(파3), 4번(파4)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앞서갔다.

또 12번 홀(파4)과 13번 홀(파3)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쐬기를 박았다.

성유진은 “한 홀, 한 홀 내 플레이만 잘하자고 생각했는데, 좋은 결과가 보답 받게 돼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매년 발전하고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게 목표였다. 이런 목표를 세워 조금 더 발전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승에 캐디의 도움이 컸다는 그는 “체력적으로 힘들 때 숨이 잘 안 쉬어질 때가 있다. 최근 장거리 비행으로 생긴 증상”이라며 “오늘 11번 홀에서 그런 증상이 왔는데, 캐디와 이야기하면서 긴장을 풀고 즐겁게 플레이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왼쪽 엄지손가락 부상은 “오늘도 샷을 할 때마다 통증이 있었다. 하지만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샷 하나하나에 집중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승 상금 일부를 유소년 골프에 기부하겠다고 한 성유진은 “유소년 선수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이런 선배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2주 뒤 롯데 오픈에 나서는 그는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는 게 목표”라며 “메인 스폰서 대회인 한화 클래식에서 우승하는 게 이번 시즌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박현경은 2021년 5월 KLPGA 챔피언십 2연패 후 우승을 노렸지만, 성유진을 넘지 못했다.

뉴시스

이대호, 日프로야구 소프트뱅크 시구자로 마운드 오른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41)가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홈경기 시구자로 나선다.

일본 데일리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구단은 28일 일본 후쿠오카 페이퍼팩에

서 열리는 지바 롯데 마린스와의 홈경기에서 이대호가 시구를 맡는다고 21일 밝혔다.

2001년 KBO리그에 데뷔해 리그 최고 타자로 올라선 이대호는 2011시즌을 마친 뒤 일본 무대 도전을 택했다.

이대호는 2012~2013년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뛰었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소프트뱅크에서 활약했다. 이대호는 소프트뱅크에서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경험했다.

특히 2015년 일본시리즈에서는 타율 0.500 2홈런 8타점을 몰아치면서 한국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일본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쥐었다.